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교폭력실태와 예방대책

- 서산·태안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

이창식* · 이채식**

*한서대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Violences of Youth and Prevention in Community

-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san City and Taean-gun -

*Chang Seek Lee · **Chae Shik Lee

*Han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iolences of youth and to develop the prevention in commun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09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san city and Taean-gun and were analyzed by SPSSWIN 10.0. The statistical technique used for this study were crosstabs, ANOVA, and frequenc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 1) Youth has suffered from more linguistic violences than physical violences
- 2) Male youths have undergone linguistic violence and robberies, while female youths have experienced stepchild,
- 3) Fifty percentage of youth violence was occurred by acquaintances or students in school
- 4) Experiences of violences were relative to peer groups.
- 5) Youths required that violence clubs should be dismissed for reducing school violences.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unity

I. 서 론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체발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신체적 성숙을 이루게 되며, 지적인 문제 해결능력도 발달하여 사고력과 논리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한 부모에게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는 아동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되며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과 속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그들만이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서적 지지와 사회성 발달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사회적 관심이 언제나 집중되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교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은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전까지의 학교폭력은 이른바 문제학생들간의 다툼이나 비행청소년에 의한 일회적인 폭력의 수준이었으나 점차 비행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불량서클을 형성하거나 사회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하부조직화를 통한 폭력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폭력발생의 회수와 폭력성이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장속도가 빨라 이전보다 일찍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점차 폭력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한편 여학생들에 의한 폭력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놀림 등 폭력의 형태들이 다양해지면서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평범한 모든 청소년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학교폭력의 발생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이론적으로 다루거나,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들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에 집중되어, 대도시와는 다른 교육여건과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실태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예방대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유형화를 이루어내고, 둘째, 각각의 유형에 따른 학교폭력의 실태를 밝히고, 셋째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자의 특성과 가정환경 및 또래친구 등 학교폭력 관련 변인을 구명하며, 넷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화

일반적으로 폭력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며 육체적으로 행하여진 상해로 가장 쉽게 이해되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개념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협박이나 따돌림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형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Olweus(1986) 반복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들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폭력행사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힘이 비슷한 두 학생이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에는 폭력이라는 말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이민희(1998)도 지적하고 있듯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개인관계나 집단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제외시키고 말았다..

한편 Bottger(1997)는 폭력의 의도성에 주목하여 폭력은 폭력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사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해자의 의도와 폭력행위의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가해자의 의도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물리적 형태로 행해진다면 직접적 폭력이며 폭력대상자의 사물에 행하여진다면 간접적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roson(1997)은 의도성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격적 행동을 도구적 폭력으로, 폭력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이 목적인 경우를 중요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Botter과 Aroson은 폭력을 가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유형 구분하면서 대상자들의 방어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폭력은 제외되고 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Jenkins와 Gowdey (1981)은 우선 폭력은 불법 부당한 방법으

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후 폭력유형에 있어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공격적 폭력과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도구사용이나 표현과 관련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나 공포, 좌절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나누고 있다(이춘화, 1999, 재인용).

한편 가해자의 의도나 대상을 기준으로 한 폭력유형과는 달리 폭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Tiersch(1995)는 폭력이 행하여지는 형태를 기준으로 물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물리적 폭력은 폭력의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직접 신체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의도적 협박내지는 신체적 괴롭힘이나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심리적 폭력은 욕설이나 비어 등 언어적 사용이나 상황적 협박과 강요,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두려움을 주는 일, 좌절감을 주는 일 등으로 제시하였다.셋째, 구조적 폭력으로는 주변 사회 및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받는 삶의 위협, 강압적인 사회관계 및 제도와 상호 인간관계로부터 빚어지는 심한 갈등으로 규정하였다(이민희, 1998).

또한 김준호(1997)는 Tiersch와 유사하게 폭력 형태에 주목하여 폭력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위협같은 언어적·심리적 폭력, 따귀 때리기나 폭행 등의 신체적·물리적 폭력, 괴롭힘으로 대표될 수 있는 중오적 폭력, 돈이나 물건 등 빼앗는 금품갈취를 중오적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중오적 폭력은 단지 괴롭힘의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물리적 폭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장소, 시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다고 지

적하였다. 이민희(1998)는 폭력의 개념과 유형 구분을 고찰한 후 폭력을 그 행위와 결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으로 유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하위개념으로, 사회적 폭력은 사회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폭력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유형화 논의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은 언어적, 심리적, 따돌림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체적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유형화에 있어 최근 집단에 의해 소수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들간의 따돌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구본영(1997), 강진령과 유형근(1999)의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은 사회적 강자의 위치나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된다. 특히 따돌림은 조직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소외감이나 대인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맷게 되는 또래관계를 통해 일반적인 청소년 누구나 기해자로든 피해자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집단에 의한 따돌림, 돈이나 물건 등의 금품갈취, 놀림이나 협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집단적 폭행의 물리적·신체적 폭력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2. 학교폭력 선행연구 고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표 1〉 참고).

김준호 외(1991)는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금품갈취, 폭행, 협박으로 유형화하여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가운데

〈표 1〉 학교폭력의 실태 및 유형화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	연 도	조사대상	학교폭력 유형화 및 주요결과
김준희 외	1997	서울중고생	유형화-괴롭힘, 금품갈취, 폭행, 협박 폭력피해 57.1% 폭력피해 : 중학생 > 고등학생
이상오	1996	초중고생 교사 부모	학생의 32%가 폭력의 심각성 인식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전국초중고	폭력피해 29%
최윤진	1997	강남청소년	유형화- 단순구타, 언어협박, 금품갈취, 성폭행 가해경험은 17% 피해경험은 34%
안선옥	1998	서울초중고 부모교사	폭력피해 41.3% 학교안 폭력피해 35%
김준호 외	1991	서울 중고생	유형화-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경험 36%
김혜숙 외	1994	서울시중고생 경기소년원생	신체적 폭력경험이 35.8%
이춘화	1995	서울시중고생	유형화-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폭력피해 경험은 27.8%(재학중인 학생에 한정) 폭력피해 : 중학생 > 고등학생

데 금품갈취나 폭행, 협박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에 이르렀다. 김혜숙(1994)은 서울지역 중고등학생과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학생들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경험인 35.8% 보다 소년원생들이 두 배(66.2%)에 해당하며 이것은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이춘화(1995)는 서울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인 금품갈취, 협박, 단독 폭행, 집단폭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를 재학중인 학생들에 한정한 피해가 27.8%에 이르렀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피해가 많았다. 특히 폭력피해에 있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이 나타나 폭력의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준호는 1991년에 이어 1997년에도 서울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폭력실태를 조사하여 괴롭힘,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폭력피해 경험이 57.1%로 이전보다 폭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의 폭력피해가 많았으며 특히 남자중학생들은 75% 이상이 폭력에 의한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청소년을 연구한 최윤진(1997)은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은 17%가 가해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34%가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폭력의 유형별 빈도에 있어 단순구타가 절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언어적 협박이나 금품갈취가 20%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안선옥(1998)의 연구에서는 41.3%가 피해경험이 있

으며 학교 안에서의 폭력경험 또한 35%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상오(1996)는 초중고생들의 32%가 폭력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과 관련있는 따돌림에 관한 연구로는 황성숙(1998), 한국교육개발원(1998), 한준상(1999), 이춘재·곽춘삼(1997), 등이 있다. 이춘재·곽금주(1997)는 서울시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왕따(따돌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가 왕따경험이 있다고 밝혀내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1998)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따돌림을 조사하여 24.2%가 피해경험이 있으며 특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로 갈수록 따돌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춘화 외(1999)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점차 물리적 폭력보다는 약자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략 20% 정도가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의 따돌림실태를 조사한 광명시청소년상담실(1999)에 따르면 광명시 초중고생의 16%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유형화된 학교폭력의 차이에 의한 폭력의 피해정도가 다르며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30% 정도가 학교폭력인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등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점차적으로 폭력의 피해와 가해자가 일반적인 학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많은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의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며,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을 통한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809명이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는 김준호(1989)와 김춘화(199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교폭력을 따돌림, 금품갈취, 놀림이나 협박, 집단폭행 등 4개로 유형 구분을 하였으며, 폭력발생장소 및 폭력시간의 2문항, 학교폭력 관련변인으로 가정환경 및 또래친구에 관한 2문항, 가해자 특성 2문항, 예방 대책관련문항 1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있어 남자 51.4%, 여자 48.6%였다. 학교구분에 있어 남녀공학이 절반이상인 63.5%로 남학교(24.6%)와 여학교(11.9%)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 보면 각 학년이 모두 30%를 넘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거주지를 보면 농촌권과 시내권이 각각 52.1%, 43.1%인 반면 어촌권은 4.7%에 그쳤다.

2. 학교폭력의 실태

가.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1) 따돌림

<표 3>과 같이 학교폭력유형에 있어 따돌림의 피해를 보면 89%가 따돌림의 피해가 없는 반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있어 남자들은 94%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83.6%로 남자들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分		빈 도 (명)	비 율 (%)
성 별	남 자	416	51.4
	여 자	393	48.6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514	63.5
	남 학 교	199	24.6
	여 학 교	96	11.9
학 년	1 학 년	243	30.1
	2 학 년	283	35.1
	3 학 년	280	34.7
거 주 지	시 내 권	346	43.1
	농 촌 권	418	52.1
	어 촌 권	38	4.7
계		809	100

〈표 3〉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 따돌림

변 인		없 다	1~2번	3번이상	계
전 체		714(89.0)	77(9.6)	11(1.4)	802(100.0)
성 별	남 자	388(94.2)	21(5.1)	3(0.3)	412
	여 자	326(83.6)	56(14.4)	8(2.1)	390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454(89.2)	48(9.4)	7(1.4)	509
	남 학 교	185(93.9)	10(5.1)	2(1.0)	197
	여 학 교	75(78.1)	19(19.8)	2(2.1)	96
학 년	1 학 년	219(90.9)	17 (7.1)	5(2.1)	241
	2 학 년	249(89.2)	28(10.0)	2(0.7)	279
	3 학 년	243(87.1)	32(11.5)	4(1.4)	279

따돌림의 피해가 많았다. 학년에 있어 점차 학년이 높아질수록 따돌림의 피해가 많았는데 1학년의 90.9%가 피해경험이 없었으나 3학년은 87.1%만이 피해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춘화 외(1999)나 한국교육개발원(1998), 이춘재와 곽금주(1997)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20% 이상의 따돌림 피해보다는 낮아 대도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따돌림이 적게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학교에서는 따돌림의 피해가 많았는데, 여중학생의 78%가 피해가 없다고 한 반면 22%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따돌림을 당한 피해가 있어 대도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그리고 남학교와 남녀공학의 경우 90% 정도가 따돌림을 당한 피해가 없었다.

2) 금품피해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금품피해유형의 학교폭력에서는 전체 학생의 82% 정도가 피해가 없었으며, 1~2 번 피해를 입은 경험이 13%였다. 금품피해는 남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여학생들의 91.6 %가 금품피해를 당한 피해가 없었으나 남자들은 73%만이 피해경험이 없었었다. 학교유형에 있어 남녀공학에서는 89%와 여학교의 81.3%가 피해경험이 없었으나 남학교에서는 63.5%만이 피해경험이 없고 1/3 이상이 금품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3) 언어적 폭력

놀림이나 협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보면 전체적으로 2/3만이 없다고 한 반면

35% 정도가 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3번 이상의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16.8%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언어적 폭력에 대한 연구를 한 황성숙(199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여자들의 71% 가 언어적 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남자들은 단지 60%만이 피해가 없었다. 특히 남학생의 24.6% 정도는 3번 이상의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었다. 한편 학교유형에 있어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남녀공학에서 언어적 폭력이 적게 발생하였다. 남녀공학의 70.3%의 중학생이 놀림이나 협박, 욕설 등의 피해가 없었으나 여학교에서는 62.5%와 남학교는 54.5%만이 피해가 없었다.

4) 신체적 폭력

중학생들은 전체적으로 3~4%만이 집단적인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표 6〉 참고). 성별에 있어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조금 많았으며, 남학교(94.4%)보다는 남녀공학(96.8%)이나 여학교(99.0%)에서 신체적 폭력의 피해가 적었다. 신체적 폭력의 발생빈도는

〈표 4〉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 금품갈취

변 인		없 다	1~2번	3번이상	계
전 체		657(82.0)	107(13.4)	37(4.6)	801(100.0)
성 별	남 자	299(72.9)	81(19.8)	30(7.3)	410
	여 자	358(91.6)	26(6.6)	7(1.8)	391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454(89.4)	41(8.1)	13(2.6)	508
	남 학 교	125(63.5)	52(26.4)	20(10.2)	197
	여 학 교	78(81.3)	14(14.6)	4(4.2)	96
학 년	1 학 년	210(86.8)	25(10.3)	7(2.9)	242
	2 학 년	213(76.6)	46(16.5)	19(6.6)	278
	3 학 년	231(83.1)	36(12.9)	11(4.0)	278

〈표 5〉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언어적 폭력

변 인		없 다	1~2번	3번이상	계
전 체		525(65.5)	142(17.7)	135(16.8)	802(100.0)
성 별	남 자	247(60.1)	63(15.3)	101(24.6)	411
	여 자	278(71.1)	79(20.2)	34(8.7)	391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357(70.3)	86(16.9)	65(12.8)	508
	남 학 교	108(54.5)	32(16.2)	58(29.3)	198
	여 학 교	60(62.5)	24(25.0)	12(12.5)	96
학 년	1 학 년	162(66.9)	48(19.8)	32(13.2)	242
	2 학 년	170(60.9)	45(16.1)	64(22.9)	279
	3 학 년	191(68.7)	49(17.6)	38(13.7)	278

〈표 6〉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신체적 폭력

변 인		없 다	1~2번	3번이상	계
전 체		770(96.5)	17(2.1)	11(1.4)	798(100.0)
성 별	남 자	386(94.4)	13(3.2)	10(2.4)	409
	여 자	384(98.7)	4(1.0)	1(0.3)	389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490(96.8)	10(2.0)	6(1.2)	506
	남 학 교	185(94.4)	6(3.1)	5(2.6)	196
	여 학 교	95(99.0)	1(1.0)	0(0.0)	96
학 년	1 학 년	238(98.8)	2(0.8)	1(0.4)	241
	2 학 년	262(94.6)	10(3.6)	5(1.8)	277
	3 학 년	267(96.4)	5(1.8)	5(1.7)	277

이춘화(1995)의 집단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보다 낮았다.

나. 폭력장소와 시간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주요 발생장소(〈표 7〉 참고)로는 주로 학교주변으로 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등 학교인근의 유흥업소 주변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등·하

교를 하는 도중에도 21%가 폭력피해를 입고 있었다. 학교내인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14.3%가 피해경험이 있었고, 교실내에서도 11%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김준희 외(1997)의 연구 결과인 학교폭력의 장소로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주변에서 발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발생시간으로는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 50%이며, 등·하교시간에도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과시간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표 7〉

학교폭력 발생장소와 시간

구 분	빈도(명)	비율(%)
발생장소	등·학교길	112
	교실	59
	학교내	79
	학원·독서실	6
	유흥업소주변	278
발생시간	수업시간	6
	쉬는시간	71
	점심시간	63
	청소시간	11
	등·학교시간	111
	방과후	268
계	530	100

10% 정도가 발생하였다.

3. 학교폭력 가해자 특성

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면식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의 면식정도를 보면 피해학생들은 모르는 사람(48.3%)보다 아는 사람

(51.7%)으로부터 폭력의 피해가 많았다(〈표 8〉 참고). 성별에 있어 여학생들의 60.6%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모르는 사람(57.3%)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학교별로 보면 여학교(55.8%)와 남녀공학(54.8%)에서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남학교는 42%로 나타났다. 김준회 외(1997)가 괴롭힘이나 신체적 협박 등의 학

〈표 8〉

학교폭력 가해자의 면식정도

변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계
전체	256(51.7)	239(48.3)	495(100.0)
성별	남자	105(42.7)	147(57.3)
	여자	151(60.6)	98(39.4)
학교구분	남녀공학	159(54.8)	131(45.2)
	남학교	54(42.2)	74(57.8)
	여학교	43(55.8)	34(44.2)
학년	1학년	68(47.2)	76(52.8)
	2학년	96(53.9)	82(46.1)
	3학년	90(52.6)	81(47.4)

교폭력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것과 같은 결과로 학교폭력의 심각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여부

〈표 9〉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여부를 보면 학교에 재학중인 가해자들에 의해 84%가 폭력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이중 피해학생의 절반이상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력피해가 50% 이하인 반면 여학생의 56.8%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남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한 폭력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4. 학교폭력 관련요인

가. 가정환경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관련요인으로 가정환경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표 10〉참고) 따돌림에 있어 부모를 둔 학생들이 편모, 편부 등 결손가정보다 학교폭력 피해가 작았으며, 금품갈취에 있어서도 부모를 둔 학생들이 결손가정보다 피해가

〈표 9〉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여부

변 인		같은 학교 학생	다른 학교 학생	학생 아님	계
전 체		260(53.2)	155(31.7)	74(15.1)	489(100.0)
성 별	남 자	118(49.4)	90(37.7)	31(13.0)	239
	여 자	142(56.8)	65(26.0)	43(17.2)	250
학 교 구 분	남녀공학	151(52.6)	90(31.4)	46(16.0)	287
	남 학 교	70(56.0)	45(36.0)	10(8.0)	125
학 년	여 학 교	39(50.6)	20(26.0)	18(23.4)	77
	1 학 년	77(53.1)	33(22.8)	35(24.1)	145
	2 학 년	104(59.4)	56(32.0)	15(8.6)	175
3 학 년		78(46.4)	66(39.3)	24(14.3)	168

〈표 10〉

가 정 환 경 과 학 교 폭 力

변 인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값
따 돌 림	부 모	732	1.1202	0.3651	-0.514
	편모, 편부	61	1.1475	0.4015	ns
금품피해	부 모	731	1.2244	0.5198	-0.783
	편모, 편부	61	1.2787	0.5206	ns
언 어 적 폭 力	부 모	732	1.5000	0.7607	-1.528
	편모, 편부	61	1.6557	0.8142	ns
신 체 적 폭 力	부 모	729	1.0402	0.2535	-2.535
	편모, 편부	60	1.1333	0.4305	ns

작았다. 또한 놀림이나 협박, 육설 등 언어적 폭력피해에 있어서도 양친이 계신 학생들이 피해가 작았으며,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학교폭력의 발생과 피해에 있어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래집단정도와 학교폭력

〈표 11〉과 같이 또래친구들과의 교우관계형성정도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보면, 친구가 없거나 1명인 학생들의 피해경험(1.31)에 비해

친구관계가 많은 3~4명 정도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1.18) 5명 이상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생(1.09)이 따돌림의 폭력피해가 작았다. 또한 돈이나 물건 등의 금품피해의 학교 폭력 유형에 있어서도 친구가 없거나 1명인 학생인 학생들에 비해 폭넓은 친구관계를 형성한 학생의 피해경험이 작았다. 또한 놀림이나 협박, 육설 등의 언어적 폭력피해에 있어서도 친구가 없거나 1명인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관계형성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업인 사회성발달과 정서적 지원을 획득할 뿐만이 아니라 점차 확산되고 잔

〈표 11〉 교 우 관 계 와 학 교 폭 력

변 인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값	LSD 1 2 3
따돌림	없거나 1명	61	1.3115	0.5928	9.295
	3~4명	141	1.1844	0.4870	
	5명이상	591	1.0981	0.3549	
금 품 피 해	없거나 1명	62	1.3115	0.7425	0.856 n.s.
	3~4명	141	1.1972	0.5489	
	5명이상	589	1.2479	0.5829	
언어적 폭 력	없거나 1명	61	1.9016	1.15047	1.783 n.s.
	3~4명	143	1.6084	0.9422	
	5명이상	589	1.6469	1.0660	

〈표 12〉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우선순위

예방 및 대책	백분율 (%)	우선순위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연계지도	17	4순위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 교육	22	2순위
폭력조직의 단속 및 해체	30	1순위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 강화	21	3순위
유해업소 단속	10	5순위
계	100	

인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거나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표 12〉과 같이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학교폭력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학교폭력조직의 단속 및 해체(30%)가 가장 많았으며,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실시(22%)와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 및 상담기관의 상담지도 강화(21%),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지도(17%) 순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상에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대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 학교폭력은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등의 유형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놀림이나 욕설, 협박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금품갈취나 집단적 폭력 등의 신체적 폭력은 발생피해가 적었다. 즉, 과거의 물리적 폭력보다는 약자를 괴롭히거나 언어적 폭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 학교구분, 학년별로 학교폭력 피해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들은 따돌림 형태의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언어적 폭력과 금품갈취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를 보면 대체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친 이후 시간에 학교 인근의 유흥업소나 등·하교 도중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시간 중에도 학교내에서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아는 사람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나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던 과거와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교우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있었다.

다섯째, 학교폭력은 교우관계가 없거나 적은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많은 수의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피해가 적었다. 청소년들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상호간에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선호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간접적인 형태인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및 상담기관의 상담의 강화나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실천보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서클이나 조직의 직접적인 단속과 해체를 제시하고 있어 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VI. 참 고 문 헌

1. 고성혜, 1995, 청소년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 광명시 청소년상담실, 1999, 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광명시 청소년상담실.
3. 권이종 외 5인, 1998, 청소년 교육론, 양서원.
4. 김준호 외, 1991, 청소년 범조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박경숙 외, 1998, 학생의 왕따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6. 안선욱, 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청소년행동연구 제3집, pp.1-36.
7. 이민희 외, 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청소년폭력 예방 지역사회네트워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8. 이춘화·이민희·임성택, 1999, 집단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9. 이춘화, 1999,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집 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그 대안,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11. 최윤진, 1997, 강남구 청소년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4권 제1호, pp. 63-85.
12.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3. 한상길, 1999,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14. Elder, G.,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 Jenkins, Richard L. and Gowdey, Eve Blodgett, 1981, Prediction of vilenc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16. Olweus, D., 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Ltd.
17. Vogt, W. P., 1997, Tolerancd and Education; Learning to live with diversity and differen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1년 3월 15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